

교육과 교회 성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잠언 9:1)

하 도 례

(미, 정통장로교 선교사)

서론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육과 교회 성장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일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한 면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근본주의자들”과는 다른 자들로서 “카리스마틱한 교회”, 또는 “경건주의자들”, “열성과들”로 불리운다. 그러한 자들은 개혁파들에게 요구되는, 특히 엄격한 성경적인 학과 과목 외에 정규 학문적인 훈련보다는 덜한 학문적 수준을 요구받는다.

그들 교회의 급성장과 교육에 쏟는 그들의 낮은 순위 차원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교회 성장이 교육하고는 반비례한다고 성급히 일반화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 모른다. 교회 지도자의 자질에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교단들은 우리가 직면해 보듯이 놀랄 만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육과 교회 성장 사이의 분명한 상호 연관성은 기독교 사회사적 차원에서 볼 때 쉽게 단정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폴 울리(Paul Woolley) 박사는 필자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교회사가 두 관계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 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교회사 교수 중 다른 클레어 데이비스(Claire Davis) 교수 역시 동일한 견해를 밝혀 주었다.

그러나 우리 교수와 우리 자신들은 역사 가운데 두 가지의 상호 연관성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참된 교육과 참된 교회 성장 관계는 정반대이거나 또는 서로 유해한 관계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데 일치하였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인 것은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이 두 가지 행위에 종사하셨기 때문이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마 16:18).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치라”고도 말씀하신 것이다. 가르치는 일은 제자삼는 일부분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일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교회 선장과 교육이 함께 병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다음의 성경 구절 가운데서 드러나는 명백한 사도적인 가르침과 선언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점점하게 될 때, 특히 아모스 9:11,12의 예언적인 약속의 성취 문제를 다룰 때,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해 온 선교 사역과 밀착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인용하였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 것과 교회 성장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의 유추 속으로 몰아가게 한다. 그러나 필자의 관심은 야고보와 같은 예언자적인 사도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이다. 그는 말하기를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고 말했다(21절).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논쟁을 했던 모습에 익숙한 것처럼 야고보 역시 그랬던 것을 볼 수 있다.

21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일으킨 이래, 우리는 모세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교훈하자”라는 의도를 지닌 말씀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한 이방인들이 완전히 믿음의 집밖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면 그러한 추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오히려 그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몇몇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러한 생각은 바울이 회당을 설교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일치된다. 또 그의 청중들에게 회당에서 연설한 측면을 보아도 사실이다(행 13:15, 26, 22:1).

23:1 참고). 야고보 사도는 다윗의 장막을 헤롯의 성전과 일치시킨 것이 결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성전과 예배 처소 및 회당의 지도력과 신자들의 책임 등을 일치시키려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곳은 한 군데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잠시 동안 그같은 생각이 지속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의 결정과 특별히 나중에 바울의 행동들 가운데서 구약의 물리적인 서술이 영적인 차원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에 나타난다. 또 모세의 법이 새 계명 속에 짜여지는 원리 가운데서도 드러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요점은 동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공석상에서 야고보 사도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성장과 선포 사역의 상호 관계성을 언급하며, 또 선포 사역과 교육 사이의 관계가 있음을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행위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라버스 헤르포드(Travers Herford)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당은 예배와 교육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통해서 종교를 조성시키기 위한 지역 회집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역사에 알려진 회당의 성격으로 내려져 왔다”(The Pharisees, p.92, T.W.Manson의 A Companion to the Bible, p.454에서 인용). 바울의 후속조치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며 그 후에 복음 선포 사역을 감행한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또한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선포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교회 지도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데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자들과 교회들에게 개별적으로 교훈하는 그의 서신에 나타난 것처럼, 병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의 매일 이루어질 토론은 교훈적이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본고에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교육 문제를 취급하려는 것이다. 바울의 행동 가운데서 나타난 열매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의 교육이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보겠다.

1. 교육: 전도와 목양을 위한 성경적인 근거와 모범

A. 교육은 교회 성장에 포함된 제자 훈련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1)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은 그들이 믿을 수 있기

전에 필요한 것이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4 이하) 필자는 복음 선포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을 교회가 얼마나 선포와 가르침에 대한 이상을 보다 많이 밀착시켜 나가는지를 보여 줄 조화 있는 한 시험대로서 동등히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필자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이 성도들에 대한 훈련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정확한 일치를 촉구하지는 않는다.

(2) 지식은 믿을 만한 신앙 고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우리의 전교리적인 체계는 이 원리를 전제하고 있다.

(3)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전해져야만 하며 그들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바울 사도는 이것을 디모데에게 확인시키고 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마지막 세 번째 설명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첫째는 단순히 학문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르쳐진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친 모든 것들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야 한다. 2등급 제자들을 위하여 설정된 등급 신앙 표준과 실제는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 온전한 가르침의 의무는 필요한 함축으로 말미암는데 그것은 그들이 개별적으로 일하든, 협력 사역을 하든지 간에 모든 제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최후의 이 명령 역시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제자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다.

B.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려는 성경적인 실례들이 있다

(1) 구약의 선지 학교

H.H.Eyer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I.S.B.E. “교육”)

“엘리아 시대에 있었던 소위 ‘선지 학교’는 베델과 여리고 및 길갈에 있었다(왕하 2:3, 5 4:38 이하).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한 학교들은 교육보다도 서로 덕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협의회 또는 형제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들의 형제 모임을 지칭하는 말로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종교적인 훈련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학교’와 그의 제자들의 학교와 공통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복지를 위한 공통 관심이 있었다.

선지자들이 한 시대에는 분명 이스라엘 국가와 구약 시대 교회의 주요 선생이었음이 틀림없지만 율법 수호자와 백성들의 근본적인 교사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었다(레 10:11, 대하 15:3, 17:7~10).

그리고 선지자들의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다든지, 선지자가 없을 때는 다른 차원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우선적으로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속담이나 잠언 및 기발한 어휘들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그룹들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로서 부각된 자는 왕이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에스라 7:10) 자는 서기관이요 제사장인 에스라였다. 유다 족속이신 예수님은 랍비로서 율법을 읽고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모인 자들에게 안식일날 율법을 풀어 설명하였다. 교육과 실습 기관으로서의 회당은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기록이 전무하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자신과 제자들 역시 인간이 만든 제도를 사용하고 계심을 본다. 주님은 회당을 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될 때, 유연성과 창조성을 위해서 교회의 창립을 유용하게 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교사들의 다양성과 운영

계획의 다양성은 우리에게 교훈적이라야 하는 것이다.

(2)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필자는 본고에서 인도의 복음주의 학생 연합회 총무인 P.T. 찬다필라(Chandapilla)가 쓴 “예수는 12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라는 글에서 제시한 8가지 요점을 정리하여 적는다(*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Vol.5, #4, pp. 210 ff).

a. 예수는 12명의 사람을 선출하였다(눅 6:12,13). 이것은 70명 중에 12명을 고른 것 같이 보인다. 선택을 위한 분명하고도 명백한 지침들은 분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침을 공식화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이며 어쩌면 무역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찬다필라는 말했다. 그는 또한 지적하기를 이 택함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적 진리에 책임을 지닌 자들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12명을 선택하기 전에 깊은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b. 예수님은 12명의 선택된 자들을 그의 관심의 중심에 두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 필자는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생활을 같이하였다면 동양적인 관습에서 선생이 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c.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교훈 및 실제적인 지도력을 기르는 일을 가르쳤고 함께 강론을 하였다. 접촉점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었고, 또 학문적인 수련을 쌓은 것도 아니었다.

d.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주님 자신의 고민거리들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밝히셨다. 선생의 내면 생활이 신참에게 이해 못할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선생이 어떤 목적에 대해

서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한국 학생들이 매우 의아해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학생들의 관심은 선생 자신의 견해와 느낌에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초연함 또는 위엄있는 자세를 깨트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동양이나 서양에서 모든 선생들이 학생들 앞에서 지녀야 할 것들인데 말이다.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태도의 결핍을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이것처럼' 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e. 예수님은 12명을 구성하여 자신감을 배양시켰다(요 1:41 이하, 47절 이하). 그는 그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한 아픔을 감당하였고, 원수들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그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시켰다.

그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했다.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은 지도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찬다필라는 말하였다.

f. 예수님은 실제적인 두 가지 유형의 임무를 할당하는 데에 제자들을 참가시켰다. 하나는 일상적으로 늘 존재하는 잡일로서 예를 들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 먹을 것을 구하는 일, 나귀를 구하는 일 등이었다(요 13:1~15, 4:8, 눅 19:29 이하, 22:8 이하). 두 번째는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영적인 사역에 동참시켰다(마 14:16, 22~25, 17:14~16).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일 등을 하심으로써 그가 단순히 교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모범이며 모델임을 보여 주셨다.

g. 예수님은 12명을 훈육하셨다(마 16:17, 23). 이 훈육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평가와 격려 및 책망이다.

h. 예수님은 최후의 시간까지 그의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았다(요 13:1~30).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다. 어쩌면 유다가 배반하러 나가기 전에 성찬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다. 요한복음 13:38은 베드로가 그 날 밤에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나중에는 나를 따르리라."고 하였다. 13장 전체는 13:1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의 해설로 취할 수 있다.

(3)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

a. 바울과 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 또는 동반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울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동반할 사람들을 선출하고(행 15:40), 그리고 마가를 심사하는 일 등이(행 15:38) 포함되었다(앞의 (2)번의 a항을 참고).

b.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이며, 개인적이고 또 실제적인 지도력이 나타난다. 우리는 감옥에서 실라와 함께 있는 바울을 보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이들을 만난다. 이들은 자원해서 함께 옥에 갇힌 자들로서 바울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앞의 (2)번의 b와 c항을 참고).

c. 바울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고, 자신감을 개발하여 주었다((2)항의 e항목).

d. 바울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임무를 할당시켰다. 디도와 누가와 같은 다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금을 모으도록 하였다(고후 8:16~23). 두기고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형편을 전해 주는 전달자였다(골 4:7,8).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동일한 사역을 위하여 마게도냐로 보냄을 받았다(행 19:22). 나중에 디모데와 디도는 교회를 돌보는 높은 책임감을 부여받았다(디모데 서신과 디도서).

(4)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행 19:8 이하)

a. 배경 : 바울은 최초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언어는 복음 선포하는 일과 친숙한 용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논리적인 힘이나 논쟁적인 결론을 바울이 “권면(pleads)”한 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신앙을 따랐고 그가 전한 메시지, 그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였고 순종하였다.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몇몇이 복음 자체를 공격하자, 유일한 가르치는 장소였던 회당을 바울이 박차고 나왔다는 점이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이 굳은 자, 믿기를 거절하는 자, “이 도를”을 비방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Berkeley역 사본은 그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였다. “바울이 그들에게서 돌이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주: 몇몇 고대 문헌 사본에 보면 ‘11시부터 4시까지’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이 일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계속하였다.”

b. 양 식: 8절은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9절은 “매일 강론하였다”고 했다(둘 다 신 Berkeley역 사본으로부터 발췌한 것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자들이 참석했는지, 무슨 교과서가 사용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두란노 서원에서 사용된 책들은 그 도시에서 마법 기술을 지닌 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같은 장에서 지적되고 있다(19:19).

c. 결 과: 10절은 두란노 서원에서 행한 바울의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이 널리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러한 분명하고도 힘 있는 언어는 두란노 서원이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창구였다는 틀림없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기록된 것들로 바울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들이 그 학교와 가르침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다졌음이 틀림없고 ‘그리하여’ 바울의 사역의 신나는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10절은 그 서원에서 행한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용어들은 분명히 두란노 서원의 용어였을 것이다. “강론하며 권면하되(persuasively discussing)”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대화에서 보듯이 선생과 학생들 사이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대화 형식인 것이다. 바울이 ‘매일 강론한’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매일 예배가 집전되면서 설교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상상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몇몇의 사본에 언급된 시간적인 측면(10시부터 3시까지 - D.614 gig syh according to Nestle)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비록 이 효과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청중들이, 그들이 들었던 것을 나가서 전파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특수 훈련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제자들의 경우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추종자들처럼 그들도 나가서 전파하고 설교할 특별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이 서원으로부터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역은 강조되어야만 하며 만일 우리가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한 성경적인 예들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 오늘날 애용되고 있는 지도력 개발 양상과 교회 성장

A. 대부분의 신학교는 현존하는 교회를 돌보는 목양 사역을 강조한다

맥가브란 박사는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책 82쪽에서 이것을 불평하고 있다. 스칼론도 맥가브란과 아주 유사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신학교 훈련 과정에서 교회 성장에 그저 호의적이지 못하는 요소들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서구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을 심으려는 것이 교회 확장의 큰 대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였고 — 맥가브란 박사는 이것을 가르켜 “문화적인 돌출(Cultural Overhang)” 문제로 불렀다 —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모든 문제들의 개요라고까지 지적하였다. 맥가브란 박사도 문화적인 돌출이 대부분 신학적 훈련 분야에서 신생 교회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동의하였다. 열거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Scanlon, 신학 교육을 통한 교회 성장):

- ① 신학 교육을 목적 자체로 간주함.
- ② 전문적인 계층을 창출함으로 평신도 증인들의 사역을 위축시킴.
- ③ 우선적으로 지적 훈련을 강조함.
- ④ 대중 속에서 발견되는 하층 집단에 대한 이해 부족과 토착민들의 역사와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는 필요성을 부가시키지 못하고 있음.
- ⑤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사용하는 것에 실패함.
- ⑥ 가장 위대한 책임감을 바라보게 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세우는 일에 실패함.
- ⑦ 오직 젊은이들과 여성들에게 강조함.

B. '거룩하게 치장된' 문제들

이것은 위의 A항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한 돌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적 엘리트들이라고 자부하는 정규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것이다. "우리만이 독일의 모든 이단들에게 대답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사고이다. 전신갑주를 입은 기사처럼 생각한다면, 평신도들은 도달할 수 없는 고상하고도 높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세우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 학문적인 지주들, 책 벌레들이 가지는 그러한 자세들은 이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C. 일반적으로 시골 교구의 독특한 문제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Ralph Felton에 의하면 성경학교나 신생 교회의 신학교 중 1/8만이 시골 교구를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교회의 80%가 지방에 산재해 있음을 기억하라(필자는 Scanlon이 어느 나라, 그리고 어떤 시대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문제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Scanlon이 제시한 것처럼 교회가 있는 곳에 학교를 옮겨가자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형제 성경학교(The Friends Bible School)는 과테말라의 북쪽 해안에 있는 교회들 한 가운데에서 신학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것은 그들 교회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이 장소를 선호하였다. 최근에 장로교회는 그들의 신학교를 태평양 해안 평야 지대(Pacific Coastal Plains)로 옮겨감으로써 신학 기관들이 수도 권으로 옮기려는 경향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시골 환경에 있는 학교는 시골과 도시 목회에 맞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신학교 운영진들은 사람들을 더 열악한 환경에 적응시켜 나가기보다 문명화된 백성들에게 사역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더 손쉬운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pp.19,20. *op. it.*)

D.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

Scanlon은 60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영혼을 건지는 학생들로서 성숙한 자로 자라는 것은 신학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며, 책들을 읽어야 하고, 동시에 잃은 양을 찾으려는 사역에 종사하여야 한다.

3. 교회 성장을 유도하는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제언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훈련에 보다 더 근접해 가는 것이 현재 산재해 있는 상황들을 개선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볼 것이다. 시골 상황에서 영혼들을 자주 접촉하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겸손히 직면하며, 주 예수를 드러내기를 추구하는 것은 —위의 D항목에서 지적한 영혼에 대한 관심 부족을 치료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시골 교구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익숙하게 할 것이며, 또 ‘거룩하게 치장된 태도’와 맞서서 싸워 나가게 할 것이다(B항과 C항).

그러나 어떤 뜻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할 것이다. 즉, 방에 신학교를 여러 개 세우는 것은 자질 있는 선생들을 확보한 교회를 침식시킬 것이며, 많은 돈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들은 아주 정확한 수치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상적인 제안들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최근에 교세 확장에 의한 대담한 전문 경험자가 남미에서 그러한 방법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는 주님을 위한 그의 사역지에 한 학생을 내보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있는 동안에 그 학생을 가르쳤다. 동시에 열심 있는 자들은 조직하고 함께 교제하며 권면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였다. 그 학생도 얼마 간의 간격을 두고 다른 그룹들과 합류시켰다. 선생이 없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안다. 몇몇 진지한 학자들이 잘 짜여진 강의안(programmed materials)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저술하는 일에 분주히 노력하여 마침내 그 학생은 독학할 수 있는 세련된 “교과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신학교들의 교과목들이 급속히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학교들은 현존하는 교수진들과 전초 기지로서 도서관 등

을 활용하여 연장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미 강의안들을 사용하고 있는 교수들은 좀더 연구를 하여서 아주 적절한 강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최근에 뉴욕 타임즈가 보고한 것에 의하면, 인구 이동이 도시로 집중되고 있고, 그 속도는 아주 빠르다는 사실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도시민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골 지역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필요는 대부분의 능력 있고 열심 있는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가속되고 있다. 이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시골 사람들의 이주는 시골 교회의 능력 있고 열심 있는 성도들이 도시로 진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너무나 간략한 것이다. 필자도 보다 더 세밀한 부분들을 소개하기에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나 Scanlon은 그의 경험을 따라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는 이미 영광 신학교에서 그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물론 착오도 많았었다. 영적인 톤과 열성 및 풍부한 재량, 그리고 동시에 믿을 만한 학문적인 경력은 나환자 수용소에 있는 비정기적이고 아주 가난한 학생들로부터 일어난 현상이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보다 확장된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몰고 간 것이다.

마지막 제안

한국 교회는 지교회마다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성경 연구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단기 성경 교육 기관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한 것들이 현존하는 교단 신학교들로부터 연장 교육의 일환으로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인가? 신학교를 다 마쳐야 하고 성경 교육 기관 과정을 다 이수해야 한다는 경향은 부수적인 비용, 예를 들면, 급료나 설비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늘날, 부자 학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과 병합하는 흐름이 있다. 하바드나 예일 대학이 그 예이다. 수천만 달러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하바드 대학이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동일한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힘이 없이 서구 신학 교육 방법을 모방하는 기대를 할 수 없는가? 현재 한국 교회도 수년 동안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 이유 때문에 연장 교육 과정은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 연장 교육은 다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풀어야 할 문제들은 여기서 다루기에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들은 상상과 사고의 문제들이지 돈이나 재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초창기 사역자들이 학교에서 신학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숙한 지도자, 목회자들로 부터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통나무 학교의 초기 졸업생들임을 기억하라(역자 주: 미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윌리엄 테넌트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 이제 우리는 목회자를 위한 신학 훈련이 오로지 현대 서구식 방법만이 최선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 모두는 단순성과 영적 실제 및 예수님을 따른 바울이 행한 것처럼 신앙을 점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자. 확실히 한국 교회는 그와 같은 배경을 예비할 수 있다고 믿는다.